

농촌 빈집, 생활·창업·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2025.2.6.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 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하여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민의 '4도3촌', 주말농장 등 농촌 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 창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농촌 빈집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1970년대에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 중인 경북 문경시를 사례로 들며, 문경시가 이를 통해 연간 12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빈집 활용 사례를 확산하고, 마을 단위의 빈집 정비 위해 농촌의 빈집이 밀집된 우선 정비 구역 내 빈집을 주거·위케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 생활 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 영화관, 공동 부엌 등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3월 4일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말까지 참여 지자체 등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라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3개소를 선정하여 3년간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원활한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집정비 통합지원 TF'를 구성, 운영하고 '빈집철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 문경시의 200년 고택 '화수헌'을
카페로 리모델링한 모습



산양양조장을 복합문화공간
'산양 정행소 카페'로 리모델링한 모습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 농촌빈집, 생활·창업·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2월 6일. 보도자료.

* 빈집실태조사 등으로 파악된 빈집 중에서 소유자의 거래 활용 동의를 받은 빈집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정보를 구체화·매물화하여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연계하여 거래 추진